

국내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연구 동향 분석 : 1996~2006년 발달장애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최 성 욱*

낙동초등학교 교사

김 민 정

대전아동발달연구소

《요 약》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달장애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총 22편의 인지-행동 중재전략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중재전략, 연구결과 및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별 분석에서 행동 및 학습, 전략에 관한 주제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유아 및 초등 아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재전략으로는 인지적 재구조화(CR)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변인에 따라 세부적 분석결과를 서술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인지-행동 중재전략, 발달장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의 특수교육 장면에서는 기존의 정신지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자폐성 장애, 유사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1970년대부터 미공법(PL94-103, 1976)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초기의 이 용어는 지적능력이 열악한 ‘정신지체’와 유사한 장애로 받아들여졌으나(대한특수교육학회, 2000; 윤치연, 2003)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교육장면 보다는 의료장면에서 자폐성 장애아동을 발달장애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장애 용어를 정의하기보다는

* 교신저자(byeyou2000@hanmail.net)

장애를 지칭하는 광의의 의미로서의 ‘발달장애’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한다.

광의의 의미로서의 ‘발달장애’는 출생시부터 20세까지의 발달상 모든 유형의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이며, 이 유형에는 인지적 결함과 관련된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 지체부자유, 청각과 시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병허약을 비롯한 건강장애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상복, 2000; 윤치연, 2003).

이처럼 발달장애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의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아동들을 중재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기 이전에 장애특성을 파악하는 병인론적인 이해와 더불어 기형학에 대한 이해,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전략의 사용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윤치연, 2003).

이런 경향과 더불어 인간의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여 문제행동의 발생빈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면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아동들로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중재전략에 있어서도 기존의 고전적 행동수정에서 벗어나 조작적 학습의 원리를 응용한 응용행동분석을 통해 사회공동체 운동,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의 치료에서의 긍정적인 영향, 문제행동분석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것이 사실이나(Heiden & Hersen, 1995; Lindsley & Skinner, 1954; Lewinsohn, Youngren & Grosscup, 1979; 김정모, 2004), 내담자의 낮은 동기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치료효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Foa & Emmelkamp, 1983; 김정모, 2004).

이처럼 단순히 행동주의 이론만으로는 다양한 아동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였으나 인지주의와의 결합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Mahoney, 1977).

Bandura(1977)의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강화와 같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Meichenbaum(1975)의 자기지시법, Beck(1967, 1993), Ellis(1962, 1994) 등으로 이어지며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경계를 벗어나 인지-행동이 결합된 중재 모델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김정모, 2004).

즉, 사람의 인지적 중재 사건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인지적 행동 치료가 보편적인 중재방안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서경희, 1996),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나 분야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김정모(2004)는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적 발전과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명칭보다는 심리학적이거나 실증적 검증이라는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를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인지-행동치료라는 것은 용어에서 보다시피 인지와 행동 전략 모두를 내포하고 있는 중재방안이다. 이 용어는 인간의 내면적 특성보다는 외현적 상황 및 환경을 중시한 전통적인 행동적 접근에서부터 이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외현화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인지적 접근 양자 모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범, 2000). 1950년대 중반 심리학의 행동주의 학습원리에 기초하여 영국, 남아프리카, 미국 등을 거치며 발전하여 1970년 이후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인지심리학의 발전으로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인지-행동치료란 용어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적용한 ‘행동치료’, 이 용어가 협의의 개념이라 하여 나온 ‘행동주의 치료’, ‘행동수정’ 등 용어의 정의에 있어 큰 혼란을 겪다 현재는 인지행동치료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정모, 2004).

여러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외국의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의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인지-행동 중재기법이 교육 및 임상에 있어 보편적인 전략으로서 받아들여져 체계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학문의 영역에 따라 인지-행동 중재전략에 있어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체계 또한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이론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발달장애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한 국내 연구논문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논문들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중재전략, 연구결과 및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교육 및 임상장면에서 손쉽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수아동교육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논문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논문은 다음의 몇 가지의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첫째,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논문을 선정하였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제외한 실험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국내 특수교육관련 학술논문과 석·박사 학위 논문 중 발달장애 대상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되는 발달장애관련 연구 중에서도 치료, 의료 장면과 관련되는 내용의 논문은 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 간의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친 연후에 제외하였다. 단행본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를 제외한 일반 학술지에 수록된

논(단)문 또는 복리뷰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셋째, 분석 논문 중 동일 저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학술논문에 수정 발표한 경우는 본 연구와 관련되는 논문 1편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분석 논문 선정 시 신뢰도를 높이고자 특수교육 관련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관련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석·박사 학위논문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학술지의 범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한정하였다. 2007년 7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학술지 중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심리 관련 학술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학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언어치료연구, 특수교육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놀이치료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유아특수교육연구로 총 12개의 학술지였다. 이러한 학술지에 수록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한 논문은 국내 전문전자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국회도서관, 누리 미디어에서 검색 및 수집하였으며,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나, 웹상에서 열람이나 수집이 어려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해당 도서관으로 상호대차원문 복사 서비스를 신청하여 제공받았다.

다섯째,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한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수정’, ‘합리적-정서적 치료’, ‘자기-지시 훈련’, ‘불안-관리 훈련’, ‘문제해결치료’, ‘스트레스 관리 훈련’, ‘체계적 합리적 재구조화’, ‘개인적 과학’, ‘합리적 행동치료’, ‘자기-통제 치료’, ‘구조적 심리치료’ 이라는 주제로 기술한 논문을 수집하여 인지치료관련 논문 134편, 인지행동수정관련 논문 22편, 인지행동치료관련 논문 208편 총 364편의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 18편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발달장애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한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석 논문의 수는 학술지 4편, 석·박사학위논문 18편하여 최종 22편이며,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발표 수는 <표2.1>과 같다.

<표2.1> 분석 대상 논문의 연도별 발표 수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학술지			2					1	1			4
석사			1	1	1		1	2	5	4	2	17
박사		1										1

2. 분석내용

발달장애 대상 인지-행동 중재전략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방법 관련 도서(남기성, 2006; 성태제, 시가자, 2006; 최현철, 2003) 및 동향분석 관련 선행연구(김소희, 정혜승, 2007; 김은경, 김은경, 2006; 전병운, 고진복, 2007)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석의 기준을 작성하였다. 그 기준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육관련 교수 및 전문가 3인에게 분석틀을 제시하여 검토한 후에 연구자 2명과 전문가 3인이 함께 모여 그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여 <표2.2> 논문 분석틀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영역은 모든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해 연구주제, 연구대상, 중재전략, 연구결과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1) 연구주제

연구의 주제는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중재전략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크게 사회성, 학습, 행동, 전략,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분류하여 세부 연구 주제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사회적 유능성, 비순응 및 공격행동, 문제행동, 문제해결력, 상담사례, 식탐행동, 대인관계, 정서통제, 자기점검법, 과제(직무) 수행행동 및 성취, 자기관리, 자기통제, 신념, 자아개념과 성취동기, 언어지시순응행동과 친밀행동, 자기자극행동, 인식과 계산능력, 또래관계, 장애아 부모교육을 범주화시켜 분석하였다.

<표2.2> 논문 분석틀

분석영역	분석내용	
연구주제	사회성	사회적 유능감,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 또래관계
	학습	과제(직무)수행방법 및 성취, 자아개념과 성취동기, 인식과 계산능력, 주의력 결핍, 충동성
	행동	비순응 및 공격행동, 문제행동, 식탐행동, 언어지시 및 순응행동과 친밀행동, 자기자극 행동
	전략	문제해결력, 정서통제, 자기점검법, 자기통제, 자기관리
	기타	상담사례, 신념, 장애아 부모교육

분석영역	분석내용	
연구대상	대상유형	ADHD,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기타 포함), 시각장애, 자폐, 중도장애(자폐 +정신지체), 지체장애, 학습장애
	대상연령	초등(유아 포함), 중등, 고등, 기타(발달장애아동 부모)
	대상자수	단일대상부터 29명까지 다양하게 구성
중재전략	검사도구	K-CBCL, KEDI-WISC, 문제해결기술평가, 비디오평정, MESSY, Maston 아동사회기술평가척도, 아동또래관계평가, 행동관찰, ASQ, ADHD-RS, SSQ, ACTeRS, 공격성검사, 대인관계검사, K-WISC-III, KPRC, K-CRS, K-ARS, 섭식행동 측정도구, 행동관찰기록표, 교사평정용또래관계측정, Iowa사회적능력척도, SCT, 교사평정용자아탄력성척도, 아동우울검사
	문제해결치료(PS), 대처기술치료(CS), 인지적 재구조화(CR)	문제해결전략, 자기교수, 자기지시, 자기교시훈련, 자기주장훈련, 분노대처훈련, 통합절충적 프로그램(인지, 행동, 정서), 분노통제훈련, 사회기술훈련, 주의집중훈련, 잠깐 생각하기프로그램
연구결과	분석논문 대상으로 연구결과 및 효과를 살펴봄.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상유형, 대상연령, 대상자수, 대상선정기준제시유무, 검사도구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대상유형에서는 발달장애에 속하는 ADHD,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기타 포함), 시각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중도장애(자폐 +정신지체), 지체장애, 학습장애로 구분하였다. 정서·행동장애 중에서 기타 항목은 특수교육진흥법상 정서장애의 정의에는 해당되나 분석 논문에서 적대적 반항장애나 품행장애와 같이 특정 장애 명으로 명목화하지 않은 연구대상을 지칭한다.

연구대상 연령의 경우 초등(유아 포함), 중등, 고등,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수는 대상자의 숫자를 그대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도구란 변인 측정을 위해 사전-사후에 실시된 도구들을 지칭하며 이 도구들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표준화, 비표준화로 분류하고 표준화 검사의 세부 항목으로 학습, 지능, 언어, 사회성, 행동, 판별, 기타로 범주화 시켰으며, 비표준화 검사의 세부항

목으로는 국·내외 문헌들에 사용된 검사 도구를 수정한 것과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작검사로 나눠 분석하였다. 그 외 비디오 촬영이나 비디오 자기모델링, 행동관찰(등간, 비율 기록법)등은 제외하였다.

3) 중재전략

중재전략 유형 분석은 인지-행동중재전략관련 선행연구 오세란(1997)이 제시한 인지행동치료의 세 가지 범주 즉, 대처기술치료(CS), 문제해결치료(PS), 인지적 재구조화(CR)와 서경희(2007)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 중 문제해결전략, 자기교수, 자기지시, 자기교시훈련, 자기주장훈련, 분노대처훈련, 통합 절충적 프로그램(인지, 행동, 정서), 분노통제훈련, 사회기술훈련, 주의집중훈련, 잠깐 생각하기프로그램을 참고하여 22편의 분석 논문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내용별로 대처기술치료(CS), 문제해결치료(PS), 인지적 재구조화(CR)의 세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2.3>인지행동치료 모델들과 같다.

오세란(1997)은 인지행동치료를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한 후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장애나 혼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델들을 인지적 재구조화(CR),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양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델을 대처기술치료(CS),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 전략을 모색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모델을 문제해결치료(PS)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대상별 선호하는 중재전략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표2.3> 인지행동치료 모델들(Mahoney & Arnkoff, 1978; 오세란, 1997)

출판 년도	모델명	저자	범주
1962	합리적 - 정서적 치료	Ellis	CR
1963	인지치료	Beck	CR
1971	자기-지시 훈련	Meichenbaum	CR
1971	불안-관리 훈련	Suinn & Richardson	CS
1971	문제해결치료	D'Zurilla & Goldfried	PS
1971	문제해결치료	Spivack & Shure	PS
1973	스트레스 관리 훈련	Meichenbaum	CS
1974	체계적 합리적 재구조화	Goldfried	CS
1974	개인적 과학	Mahoney	PS
1975	합리적 행동치료	Maultsby	CR
1977	자기-통제치료	Rehm	PS
1983	구조적 심리치료	Guidano & Liotti	CR

4) 연구결과

본 연구와 관련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결과를 전병운, 고진복(2007)이 국내 장애아동 음운중심 읽기지도 연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서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논문별 결과를 살펴보았다.

3. 분석자간 신뢰도 및 자료처리

분석대상 논문을 두 명의 연구자가 100% (N=22)에 해당하는 논문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간 평균 신뢰도는 93.75%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된 수를 일치된 수와 불일치된 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함께 분류하며 일치된 의견을 구했다. 분석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전병운, 고진복(2007)이 국내 장애아동들의 음운중심 읽기지도 연구결과 분석시에 사용한 서술적 분석을 참고하여 중재전략의 효과를 구체화시켰다.

III. 연구결과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한 국내 인지-행동 중재전략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주제, 연구대상, 중재전략, 연구결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별 분석

분석논문의 주제를 사회성, 학습, 행동, 전략, 기타의 다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행동 관련 항목이(29.0%)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 관련 항목이(22.6%), 전략(19.4%), 기타(16.1%), 사회성(12.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행동변인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과 전략 관련 항목 위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3.1> 연구주제별 분석

항목	연구주제	빈도(%)
사회성	사회적 유능성,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 또래관계	4(12.9)
학습	과제(직무)수행방법 및 성취, 자아개념과 성취동기, 인식과 계산능력, 주의력 결핍, 충동성	7(22.6)
행동	비순응 및 공격행동, 문제행동, 식탐행동, 언어지시 순응행동과 친밀 행동, 자기자극 행동	9(29.0)
전략	문제해결력, 정서통제, 자기점검법, 자기통제, 자기관리	6(19.4)
기타	상담사례, 신념, 장애아 부모교육	5(16.1)
총계		31(100.0)

* 1개 이상의 연구주제 적용시 중복 측정됨.

2. 연구대상별 분석

연구대상별 분석은 대상유형, 대상연령, 대상자수, 실험처치도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표3.2>와 같다.

<표3.2> 연구대상 유형별 분석

구분	빈도(%)	
ADHD	7(28.0)	
정신지체	3(12.0)	
정서·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1(4.0)
	品行장애	1(4.0)
	기타	2(8.0)
	계	4(16.0)
시각장애	1(4.0)	
자폐 범주성 장애	1(4.0)	
학습장애	2(8.0)	
중도·중복장애	정신지체+뇌성마비	1(4.0)
	정신지체+뇌성마비 +언어장애	1(4.0)
	자폐+정신지체	1(4.0)
	계	3(12.0)
기타	4(16.0)	
총계	25(100.0)	

* 1개 이상의 연구대상이 적용시 중복 측정됨.

연구대상은 ADHD(28.0%)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행동 장애(16.7%), 기타(16.0%), 정신지체(12.0%)와 중도·중복장애(12.0%), 학습장애(8.0%), 시각장애(4.0%), 자폐 범주성 장애(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를 살펴 볼 때 다양한 범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장애 영역(ADHD)에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연령별 분석결과를 보면 <표3.3>와 같다.

<표3.3>

대상연령

구분	빈도(%)
초등(유아 포함)	13(56.6)
중등	3(13.0)
고등	3(13.0)
기타(발달장애아동 부모)	4(17.4)
총계	23(100.0)

대상연령은 초등(유아 포함)이(56.6%), 부모교육을 포함한 기타(17.4%), 중등(13.0%), 고등(13.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초등(유아 포함) 위주로 인지-행동관련 중재전략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유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급)간에서의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검사도구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제시하였듯이 분석 논문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를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3.4>로 제시하였다. 먼저 표준화 검사 도구를 살펴보면, 행동 측정 도구(25.6%), 사회성 측정 도구(15.4%), 판별 도구(15.4%), 학습(7.7%), 언어(7.7%), 지능(7.7%), 기타(7.7%) 순으로 나타났다. 비표준화 검사 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7.7%), 자작 검사 도구(5.1%)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비표준화 검사에 비해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87.2%) 비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12.8%)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4>

검사도구

분류	도구	종류	빈도(%)	
표준화	학습	기초학력검사, 문제해결기술평가, 계층적주의력수행검사(STA)	3(7.7)	
	언어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읽기태도검사(ERAS), 문장완성검사(SCT)	3(7.7)	
	지능	KEDI-WISC, K-WISC-III, 표준화지능검사(KTC)	3(7.7)	
	사회성	사회성숙도 검사, 아동사회기술평가척도(MESSY), 아동또래관계평가, 아동행동특성판별검사(ACTeRS), 교사평정용또래관계 측정, Iowa사회적능력척도	6(15.4)	
	행동	자기통제행동척도(SCRS), K-CBCL, 공격성검사, 대인관계검사, 섭식행동측정도구, 코너스평정척도, 아동우울검사,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10(25.6)	
	판별	CARS, ADHD판별도구(ASQ, ADHD-RS, SSQ), DSM-IV진단도구, 교사용ADHD평가척도(K-ARS)	6(15.4)	
	기타	자아개념검사, 개인신념검사, 교사평정용자아탄력성척도	3(7.7)	
	계		34(87.2)	
	비표준화	국내외 선행연구 수정	ADHD 평정지, 독서수준검사, 성취동기검사	3(7.7)
		자작검사	수학자율학습과제, 과제수행행동사진카드	2(5.1)
계			5(12.8)	
총계			39(100.0)	

* 1개 이상의 검사도구 적용시 중복 측정하였으며, 행동관찰 등은 제외됨.

3. 중재전략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논문에서 적용한 중재전략을 인지적 재구조화(CR), 대처기술치료(CS), 문제해결치료(PS)의 세 가지로 유형화 시켜 분석하였다. 중재전략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표3.5> 대상별 중재전략 분석 내용은 <표3.6>로 제시하였다. 먼저 구체적인 중재전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5>

유형별 중재전략 분석

유형	중재전략	빈도(%)
인지적 재구조화(CR)	합리적 정서적 치료	0(0.0)
	인지치료	0(0.0)
	자기지시훈련	2(7.4)
	합리적 행동치료	0(0.0)
	구조적 심리치료	0(0.0)
	자기교시훈련	4(14.9)
	자기주장훈련	1(3.7)
	통합적 절충 프로그램	6(22.2)
	계	13(48.2)
대처기술치료(CS)	불안관리훈련	0(0.0)
	스트레스관리훈련	0(0.0)
	체계적 합리적 재구조화	3(11.1)
	분노대처훈련	1(3.7)
	사회기술훈련	1(3.7)
	주의집중훈련	1(3.7)
	잠깐 생각하기 프로그램	1(3.7)
	Think aloud(TA)	2(7.4)
	계	9(33.3)
문제해결치료(PS)	문제해결치료	1(3.7)
	개인적 과학	0(0.0)
	자기통제치료	3(11.1)
	자기교수	1(3.7)
	계	5(18.5)
총계		27(100.0)

인지적 재구조화(CR)에서는 통합적 절충 프로그램(22.2%), 자기교시훈련(14.9%), 자기지시훈련(7.4%), 자기주장훈련(3.7%)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기술훈련(CS)에서는 체계적 합리적 재구조화(11.1%), Think aloud(7.4%), 분노대처훈련(3.7%), 사회기술훈련(3.7%), 주의집중훈련(3.7%), 잠깐 생각하기 프로그램(3.7%)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치료(PS)에서는 자기통제치료(11.1%), 문제해결치료(3.7%), 자기교수(3.7%) 순으로 나타

났다. 이를 종합하여 유형별 중재전략을 살펴보면, 인지적 재구조화(48.2%)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처기술치료(33.3%),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치료(18.5%)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별로 중재전략을 살펴보면, ADHD의 경우는 인지적 재구조화(14.0%), 대처기술훈련(17.2%), 문제해결치료(3.4%)로 정신지체의 경우는 인지적 재구조화(6.9%), 문제해결치료(3.4%)로 정서·행동장애의 경우는 인지적 재구조화(14.0%), 대처기술훈련(3.4%), 문제해결치료(3.4%)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시각장애는 대처기술치료(3.4%)만이, 자폐 범주성 장애는 문제해결치료(3.4%)만이, 중도·중복장애의 경우는 인지적 재구조화(6.9%)만이 중재전략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장애의 경우는 대처기술치료(6.9%), 문제해결치료(3.4%)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는 인지적 재구조화(6.9%), 대처기술훈련(3.4%)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별로 중재전략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ADHD(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서·행동장애(20.8%), 정신지체(10.3%), 학습장애(10.3%), 기타(10.3%), 중도·중복장애(6.9%), 시각장애(3.4%), 자폐 범주성 장애(3.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에 관계없이 중재전략별 빈도를 살펴보면 <표3.5> 유형별 중재전략 분석에서처럼 <표3.6> 대상별 중재전략 분석에서도 인지적 재구조화, 대처기술치료, 문제해결치료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3.6> 대상별 중재전략 분석

대상	중재전략	빈도(%)
ADHD	인지적 재구조화	4(14.0)
	대처기술치료	5(17.2)
	문제해결치료	1(3.4)
	계	10(34.6)
정신지체	인지적 재구조화	2(6.9)
	대처기술치료	0(0.0)
	문제해결치료	1(3.4)
	계	3(10.3)
정서·행동장애	인지적 재구조화	4(14.0)
	대처기술치료	1(3.4)
	문제해결치료	1(3.4)
	계	6(20.8)
시각장애	인지적 재구조화	0(0.0)
	대처기술치료	1(3.4)
	문제해결치료	0(0.0)
	계	1(3.4)
자폐 범주성 장애	인지적 재구조화	0(0.0)
	대처기술치료	0(0.0)
	문제해결치료	1(3.4)
	계	1(3.4)

대상	중재전략	빈도(%)
학습장애	인지적 재구조화	0(0.0)
	대처기술치료	2(6.9)
	문제해결치료	1(3.4)
	계	3(10.3)
중도·중복장애	인지적 재구조화	2(6.9)
	대처기술치료	0(0.0)
	문제해결치료	0(0.0)
	계	2(6.9)
기타	인지적 재구조화	2(6.9)
	대처기술치료	1(3.4)
	문제해결치료	0(0.0)
	계	3(10.3)
총계	인지적 재구조화	14(48.3)
	대처기술치료	10(34.5)
	문제해결치료	5(17.2)
	계	29(100.0)

4. 중재전략별 연구결과 분석

연구효과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22편의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했을 때의 발달장애대상 연구에 미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3.7>과 같다.

<표3.7> 중재전략별 연구결과 및 효과의 서술적 분석

유형	순번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및 효과
인지적 재구조화 (CR)	1	오세란	1997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지행동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 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2	민성길 외	1998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문제해결기술의 향상이 이루어짐. 실험집단의 공격성 및 비행 등 외현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사회기술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3	진주희	1998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15회기 참가집단과 25회기 참가집단으로 나누어 기간에 따른 공격성 감소의 효과를 보고자 함. 치료의 회기가 늘어남에 따라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유형	순번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및 효과
인지적 재구조화 (CR)	4	유현진	2000	자기 선택하기 기술 조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비선택적 조건에 비해 각 과제 수행참여도가 증가함.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 행동이 감소함. 자기선택기술훈련은 중복지체장애 학생의 과제 수행 정도와 참여도의 증가, 문제 행동의 감소 등에 효과적임.
	5	조현승	2004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수정 프로그램 결과 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공격성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냄.
	6	최인희	2004	자기교시훈련을 통해 정인지체 학생의 식탐행동 변화를 살펴본 결과 훈련 상황시에는 식탐행동이 감소하였으나 훈련상황 이외는 그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남.
	7	강정숙	2004	자기지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인지체 학생의 화폐 인식 능력과 화폐 계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과제수행능력과 화폐 계산 능력이 중재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됨.
	8	하남숙	2005	ADHD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 질충적 프로그램(인지, 행동, 정서)을 적용한 결과 주의력 결핍, 충동성 문제, 낮은 자기존중감, 또래 관계 문제, 학업 수행 문제에 있어 효과를 보임.
	9	정현정	2005	중도장애 고등학생에게 비디오 자기모델링을 활용한 직업기술 교수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연구참여 아동에게서 10~14회기에 걸쳐 90~100%까지 독립적인 수행률이 증가됨. 2주후에도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직무수행 능력이 유지됨.
	10	이인희	200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인지행동치료 집단훈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처 기술 치료 (CS)	11	양명희	1998	읽기와 산수 문제의 정답률은 증가하였으나 학습과제 수행시간, 발문에 대한 대답 사이에 걸리는 지연시간은 무변화. 충동적 학습 수행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12	이소향	1999	정인지체아 부모들의 비합리적 신념 개선에 REBT상담 프로그램의 적용한 결과 비난경향, 좌절반응, 정서적 무책임, 과잉불안, 문제회피, 무력감, 지나친 타인연려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 감소됨. 인정요인, 높은 자기 기대감, 의존성, 완벽성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13	최훈희	2002	혼합형 자기교시훈련이 ADHD아동의 부적절한 몸가짐, 교사의 지시 불응, 수업방해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14	두정훈 손정락	2003	Think aloud 훈련을 통해 ADHD아동의 행동변화를 관찰한 결과 계층적 주의력 수행검사(STA)의 누락오류에서는 감소비용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부모들은 주의집중 문제의 차이가 미비하다고 평가함. 아동사회기술평가척도(MESSY)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평가됨.

유형	순번	연구자	연도	연구결과 및 효과
대처 기술 치료 (CS)	15	백승진	2003	자폐성 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들에게 지시 따르기 훈련을 실시하여 지시이행률과 행동발생률을 알아본 결과 수치가 증가할수록 손 자기 자극 행동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처치 이후에도 일정수준으로 유지됨.
	16	권선귀	2004	일반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공격성 검사 결과 하위 20% 아동을 선정. 인지행동수정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 대인관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17	류재성	2004	시각장애 학생 20명을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눠 집단적 REBT를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신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나타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변화에, 연령이 어릴수록, 저지력 학생에 비해 전맹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임.
	18	임혜정	2005	통제집단에 비해 부모훈련 집단에서 ADHD아동들의 사회기술 정도가 향상되었으며, 사회기술훈련과 부모훈련을 받은 병합집단은 부모훈련 집단에서 보다 ADHD아동들의 사회기술 정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
	19	정현숙	2006	학습장애아동 30명을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REBT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 증진 및 성취동기 변화에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냄.
문제 해결 치료 (PS)	20	김현애	2003	ADHD아동에게 자기통제훈련을 병행한 독서치료를 실시한 결과 필요 이상으로 말하기, 이유 없이 몸 흔들기, 서두르기 등의 문제행동이 기초선 기간에 비해 처치나 사후기간에 유의미하게 감소됨.
	21	박혜원	2004	친밀감 형성-기초행동통제 훈련을 통해 자폐아동의 지시순응행동과 친밀행동을 형성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 형성은 아동의 행동통제 훈련과정을 습득하는 정도와 언어지시에 순응하는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침.
	22	류미옥	2005	경도정신지체 학생에게 주의집중-자기점검법과 수행-자기점검법과 같은 자기관리법을 훈련한 결과 수학과제 수행행동, 완수율, 정확율 등에서 향상을 나타냄.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총 364편의 문헌 중 발달장애 대상 연구 22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중재전략, 연구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관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성, 학습, 행동, 전략, 기타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시켜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 주제가 아동의 외현화된 행동과 학습, 학령기에 속해 있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경, 김은경(2006)이 국내 자폐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자폐 아동 대상 연구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연구에서 학습장애 관련 연구의 경우 교수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 차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편향된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 발달장애 아동들의 잠재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에서의 연구 주제 선정,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둘째, 연구대상관련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장애 유형별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쉽게 두각을 나타내는 ADHD와 정서·행동장애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행동치료는 대상 아동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아동에 따라 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Kazdin 등, 1987b; 1989; 진주희, 1998)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시에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유아 포함) 연령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른 학교(급)간에 속해있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재경, 김진호(2007)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문헌고찰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분석논문들이 초등학생과 유치원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김은경, 김은경(2006)의 연구에서도 자폐 유아 및 초등 연령의 학생들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학령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중재 효과 면에서 학교장면내에서의 특수교육이 단순히 통합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 기회균등이 아닌 발달장애 아동들의 개인내(간) 차를 고려한 적극적 의미의 분배식 평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김영진, 1990)는 인식을 재정립하여 중등, 고등 연령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평

생교육 및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의 가교로서 특수교육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검사도구별 분석에서도 연구를 위해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는 도구를 연구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표준화 검사도구 중에서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 측정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고 파악, 중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 도구가 활용되기 보다는 두드러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도구에 의한 결과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중재전략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복합적, 다면적인 검사 도구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 중재전략 관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지적 재구조화(CR) 유형 중에서 통합적 절충 프로그램(인지, 행동, 정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단일 중재전략을 활용하기 보다는 인지, 행동, 정서 등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훈련과 문제해결기술훈련을 병행하였을 때가 단독으로 실시할 때 보다 더 품행장애 아동의 치료에 효과적(Kazdin, Siegel & Bass, 1992; 민성길 외, 1998)이었다는 연구 결과와 더불어 대상 아동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 사전에 교사 및 부모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더욱 효과적(Shure & Spivack, 1979; 민성길 외, 1998)이라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넷째, 연구 결과 및 효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중재전략을 사용하기 보다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단일 중재전략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재기법을 사용하는 회기가 대부분 짧아 유지 및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결과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실생활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인지적 재구조화(CR), 대처기술치료(CS), 문제해결치료(PS) 등의 기법을 통합 절충하여 교육, 훈련시킴과 동시에 부모훈련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할 때, 중재의 효과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민성길 외, 1998). Lochman(1992)은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더불어 부모 및 아동과 연계되어 있는 주변 핵심 인물들을 교육장면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중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회기를 달리하여 적용하였더니 공격적인 아동들의 공격성향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본 연구가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진주희, 1998). 앞선 연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중재 시 고려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거나 회기를 늘렸을 때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교사의 평가보고를 비교해본 결과 중재전략의 효과에 있어 대부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교사평가가 부모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부모는 단일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

계 형성 및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교사의 경우는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미세한 행동의 변화를 파악해 내야하는 과정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또래 아동들과의 상호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며(민성길 외, 1998),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효과에 있어서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진주희(1998)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지-행동 중재전략을 사용하여 실험연구를 진행한 논문의 수가 극히 적다는 것과 더불어 발달장애와 관련된 논문만을 선정, 분류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 누락되거나 분류가 적절하지 못한 논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인지-행동 중재전략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논문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교육이나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아직도 특수교육 장면에서는 개념 정립조차도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인지-행동 중재전략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메타분석이나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지-행동 중재전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더불어 다양한 중재전략을 사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권선귀(2004). 인지행동수정 훈련이 초등학생의 공격적 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정숙(2004). 자기지시훈련 프로그램이 정신지체학생의 화폐 인식과 화폐 계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소희, 정혜승(2007). 국내 학습장애아 교육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 1996-2006년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9(2), 223-256.
- 김영진(1990). 학습부진아의 학습력 향상을 위한 인지적 행동 수정과 행동요법의 효과분석.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 167-190.
- 김은경, 김은경(2006). 국내 자폐 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1996-2005년 특수교육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1), 79-109.
- 김정모(2004). 인지행동치료의 역사와 최근의 경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393-409.
- 김정범(2000). 인지-행동 치료의 발전과정. **생물치료 정신의학**, 6(1), 140-149.
- 김정현, 류재성(2005). 집단적 REBT가 시각장애 학생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1), 233-254.

- 김현애(2003). 자기통제훈련을 병행한 독서치료의 효과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기성(2006).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은 어떻게**. 경기도 과주 : 자유아카데미.
- 두정훈, 손정락(2003). Think Aloud 훈련이 ADHD 성향이 있는 아동의 주의력 결핍, 충동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2(1), 1-15.
- 대한특수교육학회(2000). **특수교육용어사전(제2판)**. 경북 경산 : 대구대학교 출판부.
- 류미옥(2005). 자기점검법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수학과제 수행행동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재성(2004). 집단적 REBT가 시각장애 학생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민성길 외(1998). 아동의 비순응 및 공격행동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2), 1-15.
- 박영균(1989). 인지적 행동치료방법에 관한 고찰. **정서·학습장애연구**, 5(4), 113-117.
- 박혜원(2004). '친밀감 형성-기초행동통제 훈련'이 자폐아동의 언어지시 순응행동과 친밀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백승진(2003). 지시따르기 훈련이 자폐성 장애 아동의 손 자기자극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서경희(1996). 다동·충동적 아동의 자기통제행동과 분노반응에 대한 인지적 행동훈련의 효과. **아동·가족복지연구**, 1, 71-99.
- 서경희(1999). 인지 행동치료의 적용. **정서·학습장애연구**, 15(1), 129-147.
- 서경희(2007). 인지적 행동수정의 개념, 전략, 응용, 치료의 실제. **행동치료사 자격 연수 교재**. 경산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 성태제, 시가자(2006). **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양명희(1998). 아동의 충동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행동주의. **정서·학습장애연구**, 14(2), 195-214.
- 오세란(1997).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오현경, 조선미, 현명호(2006). Think Aloud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일대상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1), 1-24.
- 유현진(2000) 자기선택기술훈련이 중증장애 학생의 자기관리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윤치연(2003). **발달장애의 이해**. 서울 : 형설 출판사.
- 이상복(2000). 발달장애의 신개념 소개와 지도방법. **제18회 정서장애아 및 학습장애아 교육연수 자료집**, 경산 :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 이소향(1999). REBT 상담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 부모의 신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희(2006). 인지행동치료 집단훈련과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공격성감소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성산효도대학원.
- 임목옥, 김혜리(2004). Think Aloud 훈련이 과잉활동 성향이 있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71-189.
- 임혜정(2005). 학령기 ADHD 아동에 대한 사회기술훈련 및 부모훈련의 효과.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전병운, 고진복(2007). 우리나라 장애아동 음운중심 읽기지도 연구방법 및 결과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9(2), 115-143.
- 정인호(2003). 긍정적 자기지시훈련이 만성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현숙(2006). REBT 집단상담이 학습장애아의 자아개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정(2005). 비디오 자기모델링을 활용한 직업기술 교수가 중도장애 학생의 제과점 진열하기 직 무수행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승(200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에 대한 인지-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효과: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8(1), 95-116.
- 진주희(1998). 공격적인 아동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15회기 프로그램과 25회기 프로그램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차재경 · 김진호(2007).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국내 실험연구 문헌고찰. *정서·행동 장애 연구*, 23(3), 51-74.
- 최영덕(1994). 인지-행동적 자기지시프로그램 적용이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아에 미치는 영향. *현장특수교육연구보고서*.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최인희(2004). 자기교시훈련이 Prader-Willi 증후군 아동의 식탐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최훈희(2002). 혼합현 자기 교시훈련이 주의집중결함 과잉행동장애아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최현철(2003). *미디어 연구 방법: 응용과 실습*. 서울 : 한나래.
- 하남숙(2005). 통합절충적 접근을 통한 ADHD 아동의 상담사례.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1993). Cognitive therapy: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94-198.
- Ellis, A.(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Ellis, A.(1994). Die revidierte ABC-Theorie der Rational-emotiven Therapia. *Zeitschrift fuer Rational-Emotive und Kognitive Verhaltenstherapie*, 7, 5-30.
- Foa, E. B., & Emmelkamp, P. M. G.(1983). *Failures in behavior therapy*. New York: Wiley.
- Heiden, L. A., & Hersen, M.(1995). *Introduction to clinic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Kazdin, A. E., Esveldt-Dawson, K., French, N. H., & Unis, A. S. (1987b).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and relationship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76-85.
- Kazdin, A. E., Siegel, T. C., & Bass, D.(1992). Cognitive problem-solving skill training and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733-747.
- Lewinsohn, P. M., Youngren, M. A., & Grosscup, S. J.(1979). Reinforcement and depression. In R. A. Depue (Ed.), *The psychobiology of depressive disorders*. New York: Academic Press.
- Lindsley, O. R., & Skinner, B. F.(1954). A method for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behavior of psychotic patients. *American Psychologist*, 9, 419-420.
- Lochman, J. E.(1992).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with aggressive boys: Three -year follow-up and preventive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 426-432.
- Mahoney, M. J.(1977). *Kognitive Verhaltenstherapie. Neue Entwicklungen und Integrationsschritte*. Muenchen: Pfeiffer.
- Mahoney, M. J., & Arnkoff. D. B.(1978). Cognitive and self-control therapies. In S. L. Garfield & A. E. Borgin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therapy change*. New York: Wiley.

- Meichenbaum, D.(1975). Self-instructional methods. In F. H. Kanfer & A. P. Goldstein (Eds), *Helping people change: A textbook of methods*. New York: Pergamon.
- Shure, M. B., & Spivack, G. C.(1979).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nd primary prevention program for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8, 89-94.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in Korea : Focused on Developmental Disorders Research from 1996 to 2006

Choi, Seong-ook

Nagdong Elementary School

Kim, Min-jung

Child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nthesize research trends on the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in education for developmental disorders. For this, 22 studies that were published with important journal articles or studies in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areas from 1996 to 2006 in Korea were reviewed. A total of 22 articles or studies were analyzed in term of research topics, subjects, intervention strategies, results and effec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topic areas most referred were behaviors, learning and strategies. Second, the research subjects and participants most referred were infants and preschoolers were less included than school-aged students. Third, the most used intervention strategies was cognitive-restructuring(CR) than anything else(CS, PS). Future study trends would be discussed about that based on the result, descriptive research analysis about the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in education for developmental disorders.

Key Words :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strategies, developmental disorders

논문 접수: 2007. 11. 4 심사 시작: 2007. 11. 9 게재 확정: 2007. 12. 10